

ARCHITECTURAL REVIEW



2007년 7월호는 공연시설의 최근 경향에 주목하고 있다. 점점 더 다양해지는 공연의 양태에 따라 이것들에 대응 가능하면서 지속성이 있는 공연시설의 요구가 늘어나고, 극장 수입만으로 극장을 건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면서, 극장시설의 사회적 역할은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전에 적용되었던 랜드마크로서의 극장시설에 대한 생각들은 유효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 이번호에 다루는 공연 시설들은 바로 변화하는 역할 속에서 달라진 랜드마크에 대한 고민들을 담고 있다. 또한 영국건축사협회에서 주최하는 국제학생공모전 기사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2등을 차지하고 있어 흥미롭다.

■ Books

이번호에는 서구중심의 건축계에서는 여전히 변방에 속하고 있는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건축을 다루는 서적과 작도 도구와 도면 작성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근대를 조망하는 저작이 소개되고 있다.

• Russian Architecture and the west by Dmitry Shvidkovsky. New Haven & London : Yale Univ. Press, 2007

• Tools of Imagination : Drawing Tools and Technologies from the Eighteenth Century to the Present edited by Susan C. Piedmont-Palladino. New York : Prinston Architectural Press, 2006

• Hollow Land : Israel's Architecture of Occupation by Eyal Weizman. London : Verso, 2007

■ Project

National Ballet School of Canada(NBS)

(국립 발레 스쿨/캐나다 토론토/건축사: KPMB, GB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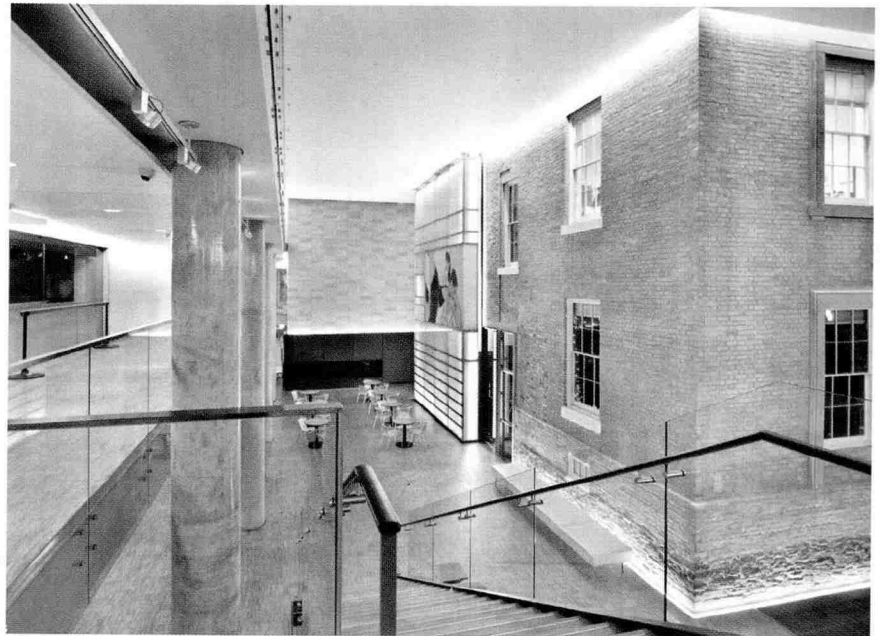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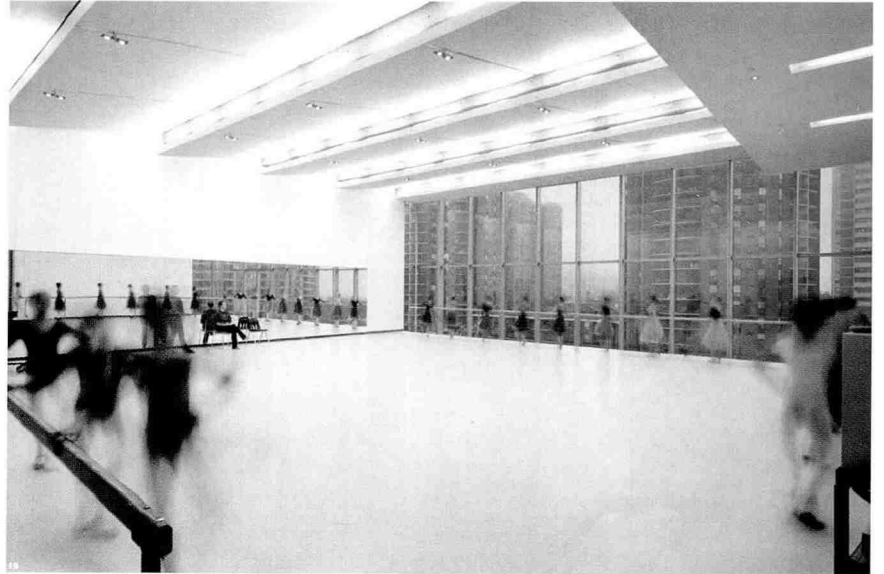
토론토에 있는 국립 발레 스쿨은 토론토를 그 자신을 위한 스크린처럼 활용하고 있다. 댄스 스튜디오는 거대한 쇼윈도우 같아서 스튜디오 안에서 일어나는 창작행위는 건물 외부의 도시적 삶과 연계된다. 또한 건물 주변에 있는 Jarvis 거리의 다른 건물들과 조화를 꾀하여 뒤쪽에 있는 분양아파트와 옆에 있는 Havergal 여대 건물은 발레스쿨과 충돌하지 않고 대지의 공적·사적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북쪽의 주택 건물을 발레 스쿨의 행정동으로 활용하여 그 주변에 새로 지어진 건물들과 간결하게 연결되면서도 중심적 위치를 놓치지 않고 있다. 3층 높이의 아트리움은 건물 내부에 작은 광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고전양식을 취하고 있는 행정동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 콘크리트 기둥에 대리석같은 무늬를 넣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건물과 이전의 건물을 명백히 구분되면서도 분리되지 않는 연계성을 보여준다. 또한 메인 휴게 공간은 아트리움과 더불어 건물의 주요한 사교적 장이 되고



있다. 섬세한 토슈즈를 위해 고무바닥을 깔다던가 주변 도시를 스튜디오의 배경마처럼 활용하기 위한 배려있는 디테일은 이 건축이 공연시설의 근본적 한계인 폐쇄성과 그럴듯함을 향한 유혹에 대한 대담한 도발이다.

**Tenerife Arts Center**  
(공연장; 컨벤션 센터/스페인 테네리페/  
건축사: Artengo Menis Pastrana)

테네리페 아트 센터는 장소의 지질학적 잠재성을 고민하고 있다. 건물은 여행자를 위한 호텔과 유흥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대지에서 도드라진 외양을 가지고 있다. 이는 주로 독특한 매스와 너울거리는 지붕 형태에 기인하는데, 특히나 지붕은 흐르는 듯한 곡선을 가지고 콘크리트 블록위에 걸쳐져 있어 시각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콘크리트 블록 또한 거푸집무늬와 망치질에 의한 바리작용과 같은 독특한 텍스처를 통해 강한 운동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건물은 마치 건축물들이 아아간 원래 대지의 일부분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부분은 특히 주 출입구 부분에서 확인되는데, 바위나 오래된 유적의 기법비와 같이 서있는 콘크리트 블록과 바람처럼 울동하는 지붕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극적인 황폐함을 일으키는데, 이는 고온 건조한 스페인의 기후와 토양을 접할 때와 매우 유사한 감각을 전달한다. 내부에서도 이러한 느낌은 연결되어, 메인 홀과 이벤트 홀에서의 풍경은 이 건축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부분이다. 홀의 콘크리트 피어 사이사이에는 파티션이 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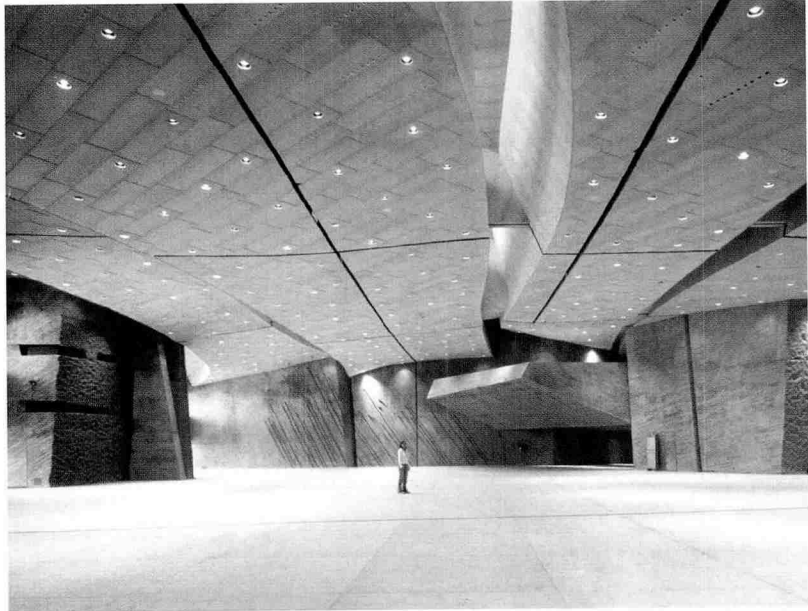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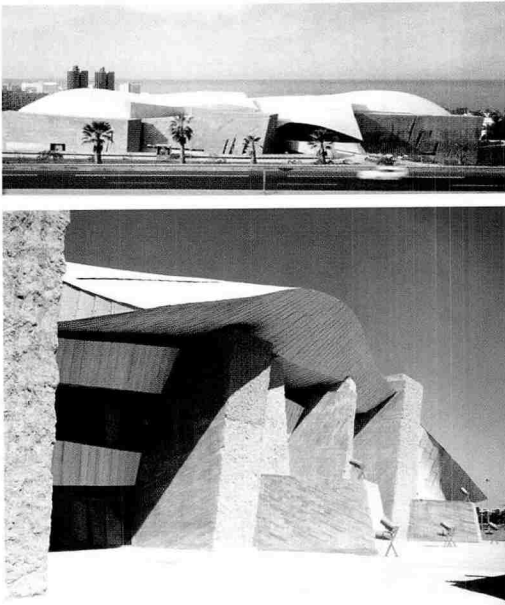


National Ballet School of Canada(NBS)

겨져 있어 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 좌석도 고정좌석과 이동 좌석구역으로 혼용되어 이벤트에 따라 적절하게 좌석을 배치할 수 있다. 투박함과 극적임. 이 건물은 그 의도만큼이나 스페인의 지질학적 특성을 닮아 있다. 대지의 어떤 특성을 흉내내는 이전의 랜드스케이프 건축으로부터의 반성이 그 자체가 대지의 일부분이 되는 건축의 새로운 경향을 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Young Vic Theater**  
(극장/영국 런던/건축사: Haworth Tomkins)

극장 시설로 유명한 런던에서 근대 극장의 주요한 초기 건물중에 하나인 영 빅 극장이 재기 넘치게 리모델링 되었다. 몇 개의 매스가 결합된 형태의 건물은 좌측으로부터 물결모양으로 요철이 있는 벽돌조의 리허설 블록과 스틸과 목재로 된 포이어 공간, 현재까지도 푸줏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간, 개조된 오디토리움 공간으로 전개된다. 특히 요



Tenerife Arts Center

철 벽돌조는 야간에 조명이 들어오면 드라마틱한 그림자를 건물에 드리운다. 푸줏간 내부는 이전의 내부 마감을 유지하고 있어 새로 부착한 시설들과 극적인 대비를 만들고 있다. 2층 높이의 포이어는 좌우로 늘어진 극장 시설의 기능적 허브가 되고 있다. 건물에 새롭게 부가된 요소들은 원기 왕성하게 기존 요소들과의 충돌과 공존을 즐기고 있다. 여기 있는 모든 요소들은 압도적이거나

경쟁적이지 않다. 섬세한 디테일은 리허설 공간에서 강조되고 있는데, 집중력 있는 훈련을 위한 환경이 적절히 제공되고 있다. 이 건물은 특히 랜드마크에 대한 고민이 두드러지는데, 현재 마법처럼 반복되고 있는 유명 건축가에 의한 대자본의 투입, 신묘한 형상의 대규모 시설의 건설의 관습에서 벗어나 활용에 의해 그야말로 그 지역을 인식시키는 장치로서의 랜드마크를 실행하고 있다는 점

에서 영 빅 극장은 대단히 주목할만한 성과이다. (글/김훈/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선문대학교 계약직 교원, 부천대학교 출강) ㉞



Young Vic Theater